

Hana Infinity



2026 June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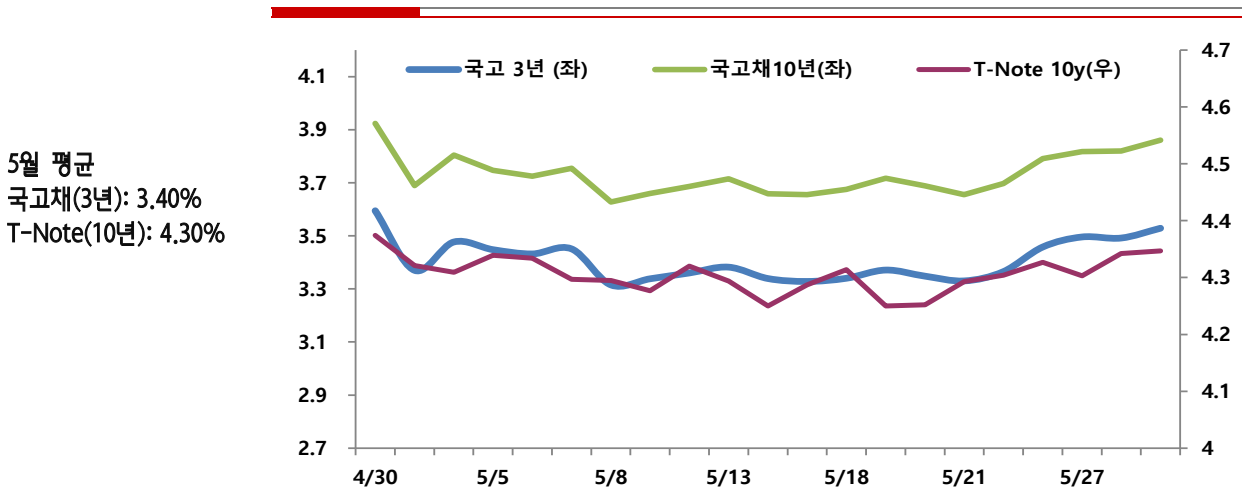
금리

5월 동향

중동 전쟁 협상이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서 기대감과 우려감 동시에 불리며 유가 상승 시점 금리 상승에 영향. 반면, 대내적 WGBI 편입 자금 유입은 긍정적 요인이었으나, 한은 매파 성향 등이 하단 제한하며 금리 상승세 마감

- 월 초, 중동 전쟁 협상 진전 기대감과 이에 따른 유가 하락, WGBI자금 유입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영향 미쳤으나,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반영과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및 수급적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전환 흐름 시현
 - 월 초, 중동 전쟁 협상 진전 기대와 이에 따른 유가 하락, 여기에 WGBI 자금 유입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에 영향
 - 이어 한은의 공식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 4월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수급상의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의 영향 등이 상승 추세 지속에 영향을 미친 영국 시현
- 중반, 중동 분위기가 냉각되며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한 흐름 속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에 동조 흐름 나타난 가운데, 대내적 확장적 재정정책 요인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지속에 영향. 이어, 영국의 재정 불안 영향 유입 등이 국고채 금리에 유의미적 영향 미친 가운데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 기조 우여 등으로 상방 압력 지속된 영국
 - 중반, 미-이란 간 협상 분위기의 냉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 흐름 속에 국내 수출 경제 호조 등으로 퇴임을 앞둔 금통위원의 매파적 언급과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이 국고채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상승 추세 이어진 영국
 - 이어, 국고채 시장 불안에 대한 정책당국 개입 영향 등이 금리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영국 재정불안 확대 우려와 중동 전쟁 종식 해법이 나오지 않음에 따른 전쟁 장기화 우려 등이 물가 전망 상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요인으로 작용
- 후반, 중동 이슈 협상 기대에 따른 유가 하락 영향으로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확대 흐름 나타났으나, 이내 한은 금통위의 매파적 금리 동결 결정과 이란의 미군 기지 타격 등 재차 중동 전쟁 물리적 타격 흐름이 금리 상승에 반영. 하지만 이후, 미-이란 협상 합의 기대감 확산 속 대내적 국고채 공급 축소 전망 등에 따라 금리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 후반, 중동 휴전 협상 기대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수세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흐름
 - 이어, 한은 금리정책에서 성장률, 물가 전망 상향에도,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지는 분위기였으나 다소 매파적 총재 회견 영향과 이란 미군 기지 타격 소식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지속. 이후, 재차 미-이란 협상 소식과 이에 대한 기대로 금리는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6월 전망

중동 전쟁 종전의 협상 불확실성 속 주요국 중앙은행 뿐 아니라 한은의 물가 중시 기조 선회 가능성에 따른 매파적 영향 등이 주요하게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높일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7 ^(f)	3.65 ^(f)	3.5 ^(f)

- 6월 FOMC는 워시 의장 취임 후 첫 통화정책 회의. 지금까지 트럼프 의중을 반영한 첫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실제 회의에서 다수의 매파적 연준위원 의견 반영 등으로 금리 동결과 향후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이 예상**
 - 6월 FOMC는 워시 의장 취임 후 첫 통화정책 결정 회의. 워시 의장 취임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1회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오히려 상반된 매파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 등이 미 국채금리 하단 지지할 전망
 - 이러한 상기 결과에는 최근 중동 휴전 협상 결렬 등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고려할 것이 명명백백하기에 나타날 정책 결과로 사료
- WGBI 편입 두번째 달을 맞아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투자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측면은 시장 안정에 유의미적인 요인. 하지만, 대외적 재정 불확실 국가들에 의한 국채 금리 상승의 국고채 금리 영향과 중동 이슈 협상 불확실성이 연내 지속 가능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 WGBI 편입 두달을 맞아 지난 3월 선제적 유입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순매수가 이어지는 점은 국고채 금리 상방을 제한하며 시장 안정에 유의미적일 수 있는 요인
 - 하지만, 중동 이슈 협상 불확실성 영향 전이의 미 국채금리 등락 요인과 재정불안정성이 높은 일부 선진국가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요인 등이 국고채 금리 하단 제한하며 전진적 상승의 동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 중동 전쟁 휴전 협상의 지지부진한 결과에도 국제유가가 90달러 초반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으나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지속되는 형국. 이에 따른 직전 금통위 결과의 매파적 영향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역대 최대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 모멘텀 강화 영향 또한 국고채 일드커브의 우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중동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 그럼에도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선까지 하락 했지만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화되는 형국. 이를 고려한 한은의 매파적 금리 정책 영향 속 연내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 반영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 호조 속 경기 모멘텀이 확대되며 국고채 일드커브가 우상향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등에도 실질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요인 또한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6월 전망
3.65%~3.85%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 위원들 다수의 인플레이션 우려 가능성 대내적 수출 등에 의한 성장 모멘텀 강화 속 일드커브 우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이란간 우호적 협상 시점에서의 국제 유가 하락세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제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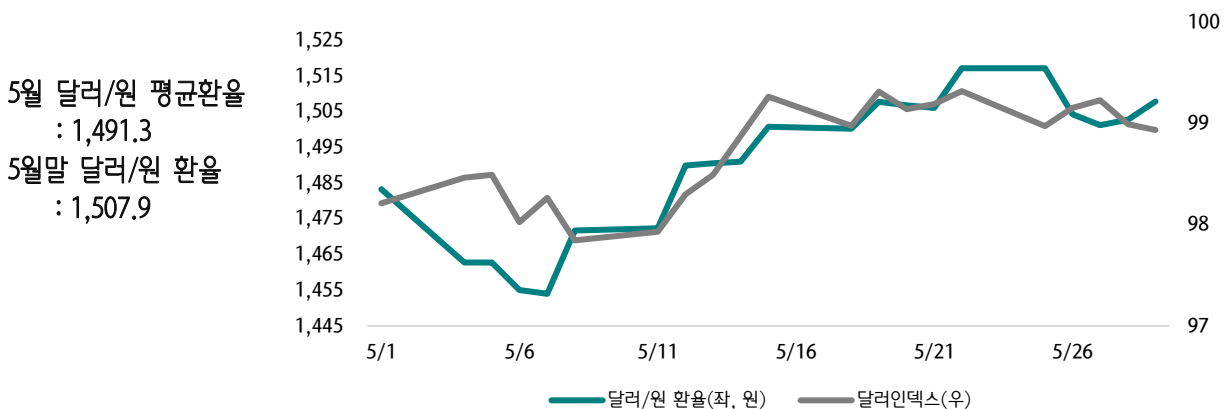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5월 동향

미-이란 협상의 교착 상태와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으로 환율 상단은 점차 높아진 모습. 특히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연준 매파 성향 강화에 대한 경계감이 강달러를 자극, 이에 환율 상방 압력 확대되며 1,500원대 움직임을

- 월초, 중등 긴장 완화 기대감과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은 1,400원 중반대까지 하락 출발.** 그러나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자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재차 확산되었고, 이에 낙폭을 모두 반납하며 상승 전환
 - 이란의 새로운 종전 협상안 전달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에 국제유가가 상승. 그러나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속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환율은 1,450원대로 하락 출발
 - 하지만, 미국의 이란 케숨섬 공습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중등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연일 이어진 영향으로 환율 상승 전환
- 월 중반 들어, 지지부진한 미-이란 종전 협상 국면 속에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시장에서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달러 강세를 견인하며 환율도 다시 1,500원대로 진입
 - 중반 들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중등 전쟁의 영향을 반영하며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 우려가 확산되며 글로벌 강달러가 환율 추가 상승을 견인
 - 뒤이어 발표된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마저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전망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증시 순매도세가 맞물리면서 환율은 다시 1,500원대에 진입
- 후반, 중등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국제금리 상승세와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 등에 환율 상방 압력 높아진 가운데,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매파적 금통위에도 완화 약세 이어지면서 1,500원대에 안착**
 - 후반,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국제 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내 증시에서 외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장중 1,519.4원까지 치솟았으나,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선 영향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
 - 이후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유입과 미-이란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에 힘입어 환율도 하락 전환. 그러나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금통위에도 불구하고, 중등 내 무력 재충돌 소식에 위험회피 심리가 재점화되며 1,507.9원에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6 월 전망

중동 불확실성의 장기화 우려, 연준 매파적 성향에 대한 경계감 등 대외 리스크와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등 대내 요인 맞물리며 환율 상방 리스크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견조한 국내 성장 펀더멘털은 원화 약세 완화해 줄 요인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495 ^(F)	1,450 ^(F)	1,400 ^(F)

- 미국 물가 오름세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연준 긴축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음. 특히 6월 FOMC에서 워시 의장이 시장 기대만큼 도비시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글로벌 강달러 나타나며 환율 상방 압력 지속 예상

 - 미국 4월 CPI와 PPI, 근원PCE 등 주요 물가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그간 온건한 성향을 보여온 월러 이사마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연준 내 매파적 기류가 강해지는 모습. 이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유발하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체제의 첫 회의가 될 6월 FOMC에서 시장의 기대만큼 완화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긴축 우려가 재차 확산되면서 강달러 흐름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미-이란 협상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는 원화 환율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 다만, 연준 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매파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강달러 흐름 일부 상쇄할 전망

 -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발언과 달러 조기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임. 이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은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 원화 환율 1,500원선 지지하게 만드는 주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일본과 유로존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되고 있음. 이는 연준의 매파 성향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을 다소 희석시켜 환율 상승세를 간접적으로 제어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등 양호한 성장 전망과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등 원화 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와 이에 따른 환전 수요 지속으로 인해 당분간 환율 하단은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

 - 한국 5월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비 53.2%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이러한 견조한 수출 흐름은 원화 펀더멘털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한은의 물가 대응 기조 강화로 긴축 가능성 높아진 점 또한 원화 가치 지지할 요인임
 -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국채금리 상승 여파와 리밸런싱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에 따른 환전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을 견인 중이며, 외인 자금 이탈세 완화되기 전까지 유의미한 환율 하락 기대하긴 어려워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6월 달러/원 환율
1,480~1,520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와 위험회피 심리 · 중동발 유가 변동성과 연준 매파적 대응 경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조한 우리나라 성장세 · 한은의 매파 성향과 금리인상 전망 강화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화 전망

중동 이슈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대응에 따른 BOJ 6월 금리인상의 시장 기대에도 대내적 재정확대 정책 지속 가능성과 미 국채 금리 상승 요인 등의 반영에 따른 영향 등이 엔화 약세 흐름 견인할 전망

5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8.2
5월 엔/원 평균환율 : 942.1

■ **(엔화 동향)**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단행 추정 움직임에 155엔대까지 하락했던 엔화는, 미-이란 협상 난항에 따른 유가 오름세에 다시 약세 전환. 중반,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속 미 국채금리 상승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약세 폭 확대됨. 후반, 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추가 개입 경계감에 상단 다소 제한된 흐름을 보였으나, 중동 리스크와 일본 수입 기업들의 달러 매수 수요 유입 등으로 159엔대에서 좁은 폭으로 등락 마감

6월 엔/원 예상범위 : 935-960원

■ **(엔화 전망)** 낮은 소비자물가 추세지만, 중동 전쟁 여파와 유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4월 생산자물가가 크게 폭등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커진 국면. 이에 따라 6월 금정위의 금리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최근 엔화 약세 제한 요인이나, 대내적 재정확대 정책 지속 가능성 등에 의한 일본과 미 국채금리 상승 추세 등이 단기적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난 4월 일본 생산자물가 폭등하며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경로까지 포함한 영향 등이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을 견인할 전망. 이에 대한 BOJ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 여부 등은 엔화 약세 제한 요인
· 하지만, 일본정부 추경 재원 마련 등 재정 확대정책 지속 의지 등에 따른 일본 국채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이 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엔/원 환율은 원화 환율 1,500원 우위 속 950원대 전후 예상

유로화 전망

중동전쟁 협상 불확실성 증폭과 이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에 의한 유로존 에너지 충격이 ECB 매파 강화에 영향 미치겠지만, 다소 시차 들 전망 속 경기모멘텀 약화와 연준 매파 성향 등이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5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677
5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40.6

■ **(유로화 동향)** 미-이란 간 국지적 충돌 속에서도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단기 휴전 소식까지 전해지며 유로화는 상승세로 출발. 중반,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으나, 예상을 웃돈 미국 물가지표로 인해 연준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 후반,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협상 시사 발언이 동시에 나오며 시장 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자, 유로화도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1.16달러 선에서 마감

6월 유로/원 예상범위 : 1,755~1,785원

■ **(유로 전망)** 중동 이슈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영향 등에 따른 에너지 충격 등이 ECB 금리인상 자극 요인이나, 정책 결정은 다소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전망. 여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측면과 미 연준의장 취임 후 FOMC의 예상 밖 매파성 가능성 등이 유로의 점진적 약화에 영향 미칠 전망
· 유로존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및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영향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고스란히 전이됨에 따라 ECB의 물가 대응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으나 6월 이후 시차를 두고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미국 대비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 통화정책도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는 점 등이 유로 단기 약세 견인 요인. 유로/원은 단기 자본 유출 영향이 큰 원화 상대적 약세에 평균 1,770원 전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GTC 타이베이(~4)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2026(~4) : 샌숀왕 CEO 키노트 AI 로드맵, 차세대 GPU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AI 반도체 협력 등 주목 안 5월 수출/입(YoY +48.0%, +16.7%), 무역수지 S&P 글로벌 제조업 PMI(53.6) 미 4월 건설 지출(MoM +0.6%)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5.3)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1.4) 일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4.5)	2 컴퓨텍스 2026(~5) 컴퓨텍스 2026(COMPUTEX(~5)) : 동남아 최대 규모 ICT 전시회, AI, 로보틱스 등 관심. 엔비디아,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 참여 마이크로소프트 Build 2026(~3) 미국 FCC AWS-3 주파수 경매 시작 안 5월 CPI(MoM +0.5%, YoY +2.6%) CPI 근원(YoY +2.2%) 미 4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6866k) 유 5월 CPI(YoY +3.0%), CPI 근원(P)(YoY +2.2%)	3 한국 유장(지방선거), Beige Book [유장] 한국(지방선거) 연준 베이시콜 공개 미 4월 제조업수주, 내구재 주문(F) 5월 ADP취업자 변동(109k)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유 4월 PPI(MoM +3.4%, YoY +2.1%) 5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5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F)	4 스페이스X 기관투자자 대상 로드쇼 미 5월 Challenger Job Cuts(YoY -20.9%) 유 4월 소매판매(MoM -0.1%, YoY +1.2%) 호주 4월 무역수지 수출입 MoM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 미 고용보고서 [기업] 피스피스스튜디오 코스타당 성장 [음식료]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 4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5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15k)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123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3%) 소비자신용지수 유 1Q GDP(T)(QoQ +0.1%, YoY +0.8%) 고윤[F](QoQ +0.1%, +0.5%) 일 4월 선형지수, 동맹지수[P]	6	
7	8 애플 WWDC(~12) 애플 WWDC(~12) :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 운영체제 iOS 27, 시에이전트 시리(Siri) 주목 [기업] 제스텍 수요예측(~12) 국제 기구테크 공개산업 박람회(~10) 세계 지열 총회(WGC 2026)(~11) 미 5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6%) 유 6월 섀넥스 투자자대회(~16.4) 일 5월 경기관찰조사 연행(40.8) 1Q GDP(F)(QoQ +0.3%, YoY +0.2%)	9 PCIM 유럽 2026(~11) : 유럽 최대의 전력 반도체 전시회.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부흥 등 관심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기업] 스트라드버전 수요예측(~15) 안 1Q GDP(P)(QoQ +1.7%, YoY +3.6%) 미 4월 수출/입(YoY +2.0%, +2.3%) 5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5.9) 기준주택매매(MoM +0.2%) 중 5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14.1%, +25.3%) 일 5월 통화량 M2(YoY +2.3%)	10 지준임, 미 CPI 지준임(지급준비율)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IT] 5월 대만 수출 데이터 발표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ENVEX 2026)(~12)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6, AI빅테크쇼(~12) 미 5월 연방채정수지 CPI(MoM +0.6%, YoY +3.8%) CPI 근원(MoM +0.4%, YoY +2.8%) 중 5월 CPI(YoY +1.2%), PPI (YoY +2.8%) 일 5월 PPI(MoM +2.3%, YoY +4.9%)	11 선물·옵션 등시만기일, ECB 회의 한국 선물·옵션 등시만기일 : 코스피200, 코스닥150 반기 리밸런싱 ECB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7연속 동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2026 FIFA 월드컵(~7/19) 안 5월 실업률(2.8%) 6월 1~10월 수출/입(YoY +43.7%, +14.9%) 미 5월 PPI(MoM +1.4%, YoY +6.0%) PPI 근원(MoM +1.0%, YoY +5.2%)	12 스페이스X 상장 스페이스X(티커: SPXC) 나스닥 상장 예정 : 6/4일 로드쇼, 6/11일 공모가 확정 [기업] 매드윈 수요예측(~18) [유통리타] 전력통계개발 공시 미 6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행(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4월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13	
14	15 BOJ 회의, G7 정상회의 BOJ 금융정책위원회(~16)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75%로 3연속 동결.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G7 정상회의(~17) 독일 실리크 직접 반도체 전시회(~17) 미 5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6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19.6) NAHB 주택시장지수(37) 유 4월 산업생산(MoM +0.2%, YoY -2.1%) 일 4월 3차산업지수	16 미국 FOMC(~17) 미국 FOMC(~17)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3.75%로 3연속 동결. 케빈 워시 의장의 첫 회의, 경제전망, 점도표 주목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한국연행 5월 금융위 의사록 공개 안 4월 통화량 M2(MoM +0.4%) 5월 수입물가(MoM -2.3%, YoY +20.2%) 수출물가(MoM +7.1%, YoY +40.8%) 미 5월 수입물가(MoM +1.9%, YoY +4.2%) 수출물가(MoM +3.3%, YoY +8.8%) 주택착공건수, 건축어가[P] 6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5.8)	17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영국 런던 모빌리티 컨퍼런스(~18) 미 5월 소매판매(MoM +0.5%) 근원 소매판매(MoM +0.7%) 미줄주택매매(MoM +1.4%) 유 5월 CPI(F)(YoY +3.0%) CPI 근원(F)(YoY +2.2%) 일 5월 수출/입(YoY +14.8%, +9.7%)	18 미 선물·옵션 등시만기일, BOE 회의 미국 선물·옵션 등시만기일 : S&P500, 나스닥100 분기 리밸런싱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3연속 동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지 등에 관심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기금 조성. 에너지, 반도체, AI, 원전 등 분야 중국 6-18 축제(중국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 미 6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유 4월 건설 생산(MoM +0.8%)	19	20	
21	22 바이오 USA 2026(~25) : 세계 최대 바이오테크 컨퍼런스. AI, 디지털헬스, ADC, CGT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등 주목 AUTOMATE 2026(~25) : 북미 최대 로보틱스 및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전시회. AI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자율제조 솔루션 등 공개 세계수소에너지대회(WHEC) 2026(~26) 독일 ICIDT 2026(~24) 안 6월 1~20일 수출/입 (YoY +64.8%, +29.3%) 유 6월 소비자지대지수[P]	23 인타배터리 유럽(~25) 인타배터리 유럽 2026(~25) : 국내 배터리 3사 참여. ESS 전시회 등시 개최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자동차] 유럽 5월 판매 데이터 안 6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6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연행	24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BOI 6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안국 국제 전력산업 박람회(~26) 2026년도 우주엑스포대회(~26) 중국 상하이 정보통신 박람회(~26) 안 6월 소매판매 미 5월 신규주택매매 일 5월 PPI 서비스	25 EU 정상회의(~26), 미 PCE EU 정상회의(~26) : 유럽 독자적 국방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책 논의, 중국-EU 통상 회담의 가이드라인 확정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26) 2026 대만 의료기기 박람회(~27) 안 5월 PCE, PCE 근원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6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8)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T)	26 러셀2000지수 반기 리밸런싱 : 유럽 독자적 국방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책 논의, 중국-EU 통상 회담의 가이드라인 확정 미국 공공전력협의회(APPA) 내셔널 컨퍼런스(~7/1) : 노후 전력망 현대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부족 대응, 에너지 전환 및 공급망 안보 등 연안 논의 미 6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행(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6월 도쿄 CPI, 도쿄 근원 CPI	27	
28	29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시범 거래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 7/6일 본 거래 개시 목표 중국-EU 고위급 회담 : 중국의 산업 보조금, 과잉생산, 배터리 등 현안 논의 [기업] 스트라드버전 코스닥 상장 미 6월 앨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6월 소비자지대지수(F) 일 5월 소매판매	30 [IT] 5월 DRAM 계약가격 발표 5월 NAND FLASH 계약가격 발표 안 5월 광공업생산 미 4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5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6월 앨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MNI 시카고 PMI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지수 중 6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일 5월 실업률, 광공업생산(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